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0년 2월)

일시	2020. 2. 20. 목. 오후 5시	장소	광주MBC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구제길, 김요수, 김태진, 김형순, 류한호, 박미자, 이나진, 이묘숙, 임철원, 조숙경, 최선희, 최영태(12명)	
	회사	송일준 사장, 박형도 경영기획국장,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한신구 보도국장, 박병규 스마트미디어사업단장, 안승현 기획심의부장(6명)	

■ 회의 내용

- 안승현 기획심의부장 : -총원 13명 중 11명이 참석하셔서 과반수 성원이 됐다. 지금부터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다. 최영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다.
- 최영태 위원장 : -오랜만이다. 코로나로 시국이 어수선한데 광주MBC는 청정지역이어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된 것 같다. 오늘은 12명 참석으로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오신 것 같다. 류한호 위원님이 YMCA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축하드린다. 취임식이 언제인가?
- 류한호 위원 : -3월 17일인데 코로나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
- 최영태 위원장 : -YMCA 이사장 자리는 상당히 격이 있는 자리여서 취임식도 상당히 규모 있게 한다. 기억에 남으실 행사가 되길 바란다. 광주가, 한국이 빨리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길 기원하면서 시작하겠다.
- 송일준 사장 : -한 달 만에 뵈게 됐다. 방금 전까지 신입기자 채용 면접을 두 시간 정도 했다. 1명 뽑는데 마지막에 10명이 올라왔다. 다 붙여줬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고, 대충할 수도 없기 때문에 면접하며 자꾸 질문하는 것이 미안했다. 오전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내려와서 방송사 사장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지금 국가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위기상황이지 않나. 이럴 때 방송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른바 방송에 부여된 공적책무를 다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이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코로나 관련 방송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는 어쨌든 코로나 사태 제어가 잘 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건강 위생 관념이 투철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한다. 비상상황이지만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저희도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 좋은 말씀 해주시면 방송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
- 최영태 위원장 : -그럼 회의안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먼저 주요 업무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 -편성제작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부분조정이 들어간다. 로컬은 변동이 없는데 본사 프로그램의 예능 라인업이 약간 달라진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문화콘서트 난장> <편애중계> <나 혼자 산다> 연속 편성하게 되고, 목요일 12시에는 MBC에브리원에서 만든 <나는 트로트 가수다> 프로그램을 MBC 그룹 차원에서 편성하게 된다. 그리고 실적은 1월 29일 광주 인공지능 비전

선포식을 생중계했고, <핑크피쉬> 제작 10편에 이은 팝업 삼을 2월 15일에 서울 익선동에서 펼쳤다. 방송은 2월 29일 토요일 10시 30분에 할 예정이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비상한 시국인데 TV와 라디오 정규프로그램에서도 발생 정보, 그리고 이후 경제 활성화, 관광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2월에는 <공정, 건강한 공동체의 출발점입니다> 캠페인을 하종강 편을 만들어서 방송하고 있다. 광주 MBC 펍컨스튜디오가 3월 하순에 오픈 예정인데 나주 난장곡간에 이어서 라디오도 하나 오픈해서 좀 더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넣을 생각이다. 현재 기초적인 기술점검을 하고 있고 주변을 정리 중이다. 그리고 <아시안 탐 밴드>는 코로나19로 4월 달에서 5월달로 한 달 정도 연기해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향후 개편 때 아직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문화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 한신구 보도국장 : -4·15 총선이 56일 정도 남았다. 4·15 총선 관련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2월달에는 <우리 동네 예비후보>라고 각 선거구별로 후보들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런 콘텐츠는 유튜브에도 게시를 해서 유권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는 있지만 광주에서는 굉장히 큰 우려가, 16번째 환자가 발생하면서 지금까지도 접촉자로는 가장 많은 걸로 되어있다. 대구 31번째 환자가 얼마나 전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접촉자로서는 가장 많았었는데, 광주시와 21세기병원에서 초기 대응이 상당히 적절하게 제대로 되어서 더 이상의 확산이 없이 일가족인 18번째, 22번째 환자로 끝난 게 다행이다. 어제부로 격리가 해제되어서 전체적으로 병원으로 가실 분들은 가시고 귀가하신 상황이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을 때를 위한 대비라든가 방역상황, 보건당국 대응 등 중점적인 보도를 했다. 특히 가짜뉴스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 보도를 하니가 반응이 꽤 괜찮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의 타격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보도를 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나 과잉대응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역경제에 상당히 아우성이 많아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는 보도를 하겠다. 성매매 실태 기획보도 세 편을 했다. 성매매를 법률적으로 막은 상황에서 음성적인 성매매를 광주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기자가 현장에 직접 가서 실태라든가 경찰의 단속의 허점, 앞으로의 제도적인 보완점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를 했다. 5·18 40주년 연중기획이 이번에 4번째 나가고 있다. 지금 김찬우 5·18기념재단 전 사무처장님이 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나 분위기가 좋은 것 같다. 앞으로도 인물 설정이나 내용 등을 잘 살펴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 <김낙곤의 시사본색>은 그때그때 현안에 맞춰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의 주요 업무 계획으로는 4·15 총선 관련해서 2차 여론조사를 2월 하순에 다시 하게 된다. 신문·통신사 4사 하고, 광주·목포·여수MBC 3사가 합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민주당 공천심사 과정에서는 문재인이나 노무현 대통령 직함을 쓰지 않도록 당에서 결정을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또 다른 부분 같다. 선관위에 등록된 그것을 써야 한다고 계속 주장한다. 그래서 후보들이 선관위에 있는 문재인, 노무현 이름을 안 바꾸고 있다. 여론조사 부분에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여론과 민심이 왜곡이 되거나 그럴 소지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다. 4·15 총선 선거방송 관련해서 3월달에 저희도 선거방송기획단을 출범시켜서 여러

가지 후보토론이라든가 방송연설, 그리고 개표 방송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지속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 5·18 4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을 한창 준비 중이다. 일본 취재도 최근에 갔다 왔고, 그 부분을 차질없이 진행해서 5월 40주년에 맞춰서 방송할 예정이다.

- 박병규 스마트미디어사업단장 : -2월에 광주MBC 보이는 라디오 <광주보라> 유튜브 채널을 본격적으로 오픈했다. FM <정오의 희망곡>, 표준FM <놀라운 3시>를 하루 3시간씩 매일 라디오와 동시에 저희가 생방송을 하고 있다. 라디오를 화면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라디오 자체도 제작에 있어 액티브해지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귀 호강 트로트 콘텐츠인 <놀라운 세시>의 트로트 가수를 저희가 직접 섭외를 해서 라디오 프로그램과 같이 진행을 해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기존에 해왔던 <얼씨구당>이나 댄스 콘텐츠인 <K-댄스>는 제작을 강화했다. 그리고 2월달에 저희가 주목할 만한 콘텐츠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문화콘서트 난장>에서 오래전에 했던 콘텐츠인데 ‘무키무키만만수’라고 굉장히 아방가르드한 여성 듀오다. 저희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콘텐츠이다 보니까 40만 회 정도로 조회 수가 폭발했던 적이 있었다. 다음으로 최근에 기존의 <얼씨구TV>에서 <얼씨구당>이라고 국악을 실연하는 사람들의 국악예능 토크 형태 중심의 콘텐츠를 오리지널로 저희가 제작하고 있다. 진도 송가인의 영향으로 그 주변인물들이 주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과 나눈 토크가 실제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내용들이어서 조회 수 몇 십만 회를 찍는 게 다반사일 정도로 반응이 괜찮았다. 작년에 지역사에서 공동기획했던 <포구만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워낙 풍경이 아름답다 보니 바다에 대해 관심도 많고, 특히 우리 지역의 고흥 편이 조회 수가 6만 회 이상이 나왔다. 사실 다큐멘터리에서 조회 수가 6만 회 이상이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한 성과가 있었다. 3월 주요 계획으로는 올해 기획콘텐츠에 해당하는 5·18 40주년, 그리고 보도와 회사가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4·15 총선에 대비해서 저희도 디지털 플랫폼에서 준비하고 있다. 과거에 광주MBC가 해태 타이거즈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것을 되돌아보는 전설의 타이거즈를 준비 중이다. 디지털 오리지널 제작으로는 K-POP 댄스 콘텐츠 <스쿨 어택>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국악 콘텐츠가 저희의 독점적인 콘텐츠여서 <얼씨구당> 오리지널을 주 1회 유튜브 라이브로 실제 진행 해보려고 준비중이다.
- 박형도 경영기획국장 : -서두에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도기자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2월 초부터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오늘 사원들과 국장, 사장 면접이 있었고 빠르면 24일 또는 25일쯤에 인사위원회를 거치면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4월에 행사가 두 가지 있는데, 4월 4일 토요일날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2시, 6시에 장윤정 콘서트가 있다. 그리고 어린이 유아용품 전시회인 베이비페어가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있다.
- 최영태 위원장 : -궁금한 거나 질문하실 것이 있다.
- 박미자 위원 : -5·18 4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는 광주MBC 자체 제작인가. 지금 광주에 5·18 40주년 준비위원회가 추진되고 있다. 그 내용 중에 준비위원회에서 준비되는 내용을 같이 조인해서 갈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하다. 준비위원회에서 어떤 과정이 준비되고 있는지 미리 위원회 측과 내용을 공유해서 방송도 함께 발맞춰 가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

- 한신구 보도국장 : -그런 부분에서 취재기자와 5.18 추진위원회가 공유하도록 노력하겠다.
- 최영태 위원장 : -또 궁금하신 것이 있나. 없으면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 구제길 위원 :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다. 광주에는 중국 유학생이 많다. 천여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분들이 지금 귀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격리나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현재 대구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되었는데 어디서 원인이 어떻게 왔을까 모르고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우한이 폐쇄되기 전에 우리나라에 2,900명 정도 지금 들어와 있다고 보도가 나와 있지 않나. 그런데 50여 명의 행방을 분명하게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 문제에 대해 추적을 해서 해주시면 한다. 특히 그분들의 소재 파악을 다시 한번 잘하도록 해주면 한다. 지역사회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화훼업자, 식당 등 많은 분들에게 생계 위협이 될 정도로 타격이 크다. 공포 조장이 되지 않도록 광주MBC에서 차분하게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뉴스를 꼭 보면 광주MBC는 선제적으로 보도를 잘해주고 있는 것 같다.
- 김요수 위원 : -지금 코로나 뉴스를 마치 시리즈처럼 보도해서 발 빠르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보도를 통해서 코로나의 흐름을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게 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보도 때문에 상당히 안심을 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 긴급하고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언론이 안내를 잘하고, 또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내 인생의 오일팔> 이 꼭지를 짧지만 여러 번 되풀이 해서 봤다.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왔다. 굉장히 평범한 거 같은데 진실을 말해주서 너무 좋았다. 대인시장에서 장사하는 한문수 님, 정신과 의사이신 정혜신 님, 노래하는 정태춘 님, 이렇게 세 분의 꼭지를 여러 차례 보았다. 세 편이 각각 따로따로 특징이 있고 그 안에 사람 냄새가 많이 나서 좋았다. 단순하게 5·18 그때 당시의 삶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5·18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또 역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잔잔하지만 큰 울림을 주었고 우리의 마음을 읽어줬고, 또 한편으로는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현실들을 재구성해주었다. 무엇이든지 정확하게 알고 나면 옳다는 정혜신 선생의 말이 요즘 가짜뉴스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알게 했다. 앞으로 5·18에 관련된 <내 인생의 오일팔> 꼭지가 꾸준히 이어져서 새로운 하나의 5·18을 알리고 그 다음에 역사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꼭지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 이요숙 위원 : -다들 코로나19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저도 코로나19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까 한다. 우리 지역이 어제부로 거의 완전히 음성으로 나왔고 격리 해제까지 됐다. 저희가 희망이 있었다가 하루아침에 다른 지역이지만, 대구로 인해서 굉장히 다시금 공포 분위기가 되었다. 그런데 지역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접촉자를 찾아가는 것보다 지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마스크는 의심되는 나의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 차단막이다. 그래서 혹 몸이 좋지 않거나 잔기침이 나는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해줘야 건강한 사람한테 옮기는 걸 막을 수 있다. 건강한 사람한테 마스크가 없다는 공포를 차단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코로나에 대해 보도할 때 이런 부분 간단하

게 소개를 해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식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어떤 인플루엔자나 바이러스라도 조금 더 잘 대처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다.

-1월 26일 일요일날 <뉴스데스크>에서 순천만 갈대빛자루 장인에 대한 소개를 하는 순간 바로 서울 중앙방송 일기예보가 연결이 되어버렸다. 일반적으로 중앙에서 방송을 하다가 지방 뉴스를 하고, 또 중앙 뉴스가 끝나면 일기예보랄지, 스포츠 뉴스가 바로 따라붙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익숙하게 방송국에서 아는 부분이다. 물론 처음에 약속했던 25분이든 18분이든 이 시간이 안 맞을 수는 있다. 만일에 상황이 서울에서 멘트가 마무리될 것 같을 때 굳이 10초에서 20초 필요 없는 멘트를 해서 혼선을 야기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다. 뉴스뿐만 아니라 가끔 아침 프로에서도 패널이 말을 길게 하는 바람에 광고가 들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다. 방송 전문가이니까 좀 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가 있다. 이런 뉴스들이 거의 보면 전날 밤에 일어난 뉴스가 다음 날 그대로 오게 된다. 아침 뉴스에다가 라디오 뉴스까지 같은 뉴스가 반복된다. 심지어 그 전날 밤에 했던 뉴스가 정오 뉴스까지도 계속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다. 뉴스라는 게 시시각각 바뀌는 주변의 상황이라 하면 아니면 꼭 필요한 핵심적인 것이 나와야 하는데 어떨 때는 그다지 핵심적이지 않은 코드가 계속 연결이 되어서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번에 신입기자를 뽑는다 하니 조금 더 지역의 현안들을 잘 빠르게, 죄송하지만 새벽 6시나 7시라도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바로 그것을 넣어주는 것이 어떨까 싶다. 특히 아침 시간에 출근할 때 라디오 뉴스에도 집중하게 된다. 그러면서 때로는 교통정보랄지 일기예보 정보를 바로 그 순간 순간 30분 동안 출퇴근 시간에 접하게 된다. 그 시간에 피로도를 느끼게 되면 신뢰도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게 된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뉴스 진행자의 ‘스’ 발음이 여전히 아직도 어색하다. 벌써 지적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뉴스의 집중도에 많은 장애가 있다. 한번 더 집중해서 훈련과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조속경 위원 : -지금 코로나19와 정치 이슈에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이 집중됐다. 사실은 국회의원을 잘 뽑는 이유가 뭔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뽑는 것이다. 최근 광주시의 이슈 중에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데 이렇게 잘 보도가 되지 않는 게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있다. 일곡지구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을 했다. 그게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더 들춰져야 하는데 보도만 나오고 들춰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내 주변의 그런 이슈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 줄 것인가가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심층취재 해주셨으면 한다. 그 다음에 시민들이 ‘수돗물을 왜 안 먹나, 집에서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뉴스를 엿그저께 저도 들었다. 시민들의 수돗물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이슈이다. 시민들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이슈들을 단발성이 아니라 심층적으로 취재해주는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 최영태 위원장 : -며칠 전에 광주전남연구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다. MBC 보도를 보니 김익주 광주시의원이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없다. 차라리 분리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고 후보자는 앞으로 그 부분에 통합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간단하게 보도되었다. 사실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와 전남의 통합 혹은 협력의 상징적인 기구이다. 그럼에도 자꾸 이것이 지적이 되고 있다. 우선 중요한 것이 연구원

이 광주와 전남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을 아예 다루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만 어느 지역에 불리하게 하면 시의원과 도의원이 들고일어나 비판하고 해서 아예 안 다루려고 한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서 저는 MBC가 언제 한번 왜 통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문회가 되면 불리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는지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연구원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시도가 과도하게 연구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뤄줬으면 좋겠다.

- 류한호 위원 : -요즘 최대의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다. 코로나는 뉴스에서 많이 취급하지만 <김낙곤의 시사분석>은 프로그램 자체가 규모가 크고 여기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은 그만큼 방송사에서 무게를 주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2월 2일에 광주에서 본격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 광주·전남에서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가, 준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가령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2월 9일에는 이용섭 광주시장을 초청해서 라이브로 방송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싶다. 물론 전문가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많이 들었고, 요즘에는 매일 아침과 오후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끝없이 듣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광주가 2월 4일에 확진자 발생 이후에 광주 자체가 패닉 상태로 빠져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이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러면서 전문가가 아닌 행정책임자가 출연한 것은 상당히 좋은 기획이었다. 한편에서는 이게 일종의 전쟁이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지역의 행정책임자가 나서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역민을 안심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또 요즘에 사회적인 불안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는데 <김낙곤의 시사분석> 뿐만 아니라 광주MBC의 뉴스를 보면 비교적 차분하고 상당히 객관성 있게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다. 적정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흔적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4·15총선을 두 달여 남겨놓고 있는데 MBC에서 여론조사를 발표했고 한 차례 더할 예정이다. 그리고 선거방송기획단을 만들어서 활동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한 마디 첨언 하자면 선거방송기획단에 외부의 전문인력이 참여해서, 가령 여론조사의 문제라든가 다른 선거 관련 여러 가지 보도의 문제를 같이 점검해나가는 구조를 하나 만들어놓았으면 좋겠다. 선거방송기획단이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길 바란다. 광주MBC는 어떤 방향으로 이 선거의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통 선거 보도가 후보자를 따라다니며 주로 선거에 관련된 뒷이야기를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많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가는 선거가 된다. 그것보다는 사전에 정책선거를 유도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프레임을 방송사에서 주도적으로 짜야 한다. 그러면서 정책 이슈를 후보자들에게 던져주고 후보자들의 반응을 받아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방식의 순환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은 선거보도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부탁을 드린다.

- 이요숙 위원 :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다. 40주년이 되는 5·18에 대해서 광주 시에서도, 문화예술계에서도 기념행사와 함께 우리 역사 바로 알리기, 잘못된 정보 바로잡기 등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김낙곤의 시사분석>에서도 5·18에 대한

부정과 왜곡을 바로잡고자 연중 역사 바로 알리기 등 진실에 대한 정립을 굉장히 갈구하고 있다. 특히 5·18에 대해 바로잡고자 하는 <5·18 팩트 체크>라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다. 진실이 아닌 가짜뉴스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 정리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고, 참 좋다고 생각한다. 2월 16일에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의 전말을 주제로 대화가 이뤄졌다. 앞으로도 계속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 마무리 엔딩에서 “5·18에 대한 진실을 잘 정리해 전파하는 일이 올해 마흔이 된 5·18에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라는 멘트로 마무리가 되었다. 보통 나이를 세는 단어는 어떠한 행사나 기념식이 점점 성장이 됐을 때 사용한다. 20세가 되어가는 광주비엔날레 이런 식으로 자꾸 성장되어가고 증폭되어가는 것들을 주로 표현한다. 오늘 저희 회의에도 계속 5·18 40주기, 40주년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마지막에 일부러 새롭게 멘트를 만들려고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더 신중하게 멘트를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5·18에 광주가 조금 많이 매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금년 40주년 같은 경우엔 과거 우리의 설움과 복받치는 아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승화된 것들로 새로운 관점에서 5·18을 재조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난다. 앞서 박미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러한 코너들을 각각 사전에 접수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 그것이 승화된 코드까지 접목을 시킨다면 <김낙곤의 시사본색> 뿐만 아니라 다른 보도 부분이나 새로운 다큐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최선희 부위원장 : -<김낙곤의 시사본색>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기억해야 할 이름’에서 노벨평화상을 적극 추천하는 그런 운동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사실 그때 당시에도 바이러스가 이미 나주 쪽에 전파되고 있는 과정 중이었고,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 다루는 내용과 조금 다른 방향이긴 한데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다. 이분들은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월급도 없고 수녀들이라 가족관계도 어느 정도 끊겨어도 결국은 자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전 국무총리였던 김황식 총리와 신부 한 분이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사장 신분으로 이렇게 노벨 평화상에 대한 추대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경제력이나, 이런 이슈가 굉장히 힘들게 돌아갈 때일수록 휴머니즘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회는 상당히 건전하고 다시금 풍요로워지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반향이 있다. 1월 26일 방영되었던 프로그램이 그런 시너지 효과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줬다. 연휴가 끼거나 5일제 때문에 타이밍만 되면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에도 무방비 상태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자국민이랄지, 또는 우리 주변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어떻게 밝혀서 승화되게 하느냐 이런 내용이 이 프로에 아주 진하게 담겨 있다. 이런 것은 활발하게 전개해서 노벨평화상까지 추천을 적극적으로 할 건데 시국이 어렵고 힘들 일수록 이런 프로들로 인해서 우리는 주변을 더 살펴보게 할 것이다. 선거철이 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선거 후보들이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끊어져서 SNS가 너무나 뜨겁고 불티나게 움직이고 있다. TV에서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에 대한 검증도 어느 때보다 필요하긴 하지만 그 이면에 가려진 부분들을 MBC는 필요에 따라 잘 찾아내 주는 역할을 해서 감사했다. 우리 세트가 항상 똑같이 보이는데 밑에다 액자처럼 넣고 뒤의 모니터에다가 띄우는 이런

부분들도 너무 화려하지 않은 그들의 삶을 투영해주는 것이어서 저는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던 방송이었다. 더불어 아무튼 명절 즈음에 잘 택해서 방영을 해주셨다.

- 임철원 위원 : -26일날 방송을 보니까 금년이 WHO가 선정한 간호사의 해이고,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 기념이라고 한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노벨상 추천에 대해 국민들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뜻깊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삶과 연관된 부분이기도 해서 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분의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는 최근 들어 많이 알려지고 있다. 2017년도에 영화로 나왔고, 소록도에는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연수원이 개원이 되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와서 연수를 받으면서 숭고한 뜻이 전수되고 있다. 그러던 차에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었다. 노벨상을 받으면 좋겠지만 수상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분들이 우리에게 남긴 겸손, 희생, 사랑, 봉사의 정신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또 소록도의 슬픈 역사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꽃, 그리고 이타적인 삶의 가치, 선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특히 설 연휴에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랑과 봉사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해주는 아주 좋은 주제이자 좋은 기획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했다.
- 최영태 위원장 :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의료인들, 의사나 간호사의 역할과 헌신이 다가왔다. 5·18 때도 그랬다. 5·18 때의 의료인들 관련해서 아마 다큐로 나왔을 것 같다.
- 김요수 위원 : -저는 2월 12일 <오매 전라도>를 보았다. 시작을 하면서 코로나 현황과 전 세계의 상황, 지역상권 살리기, 지하철 방역 활동 등 이런 것을 방영을 했다. 그것이 시민의 힘이 어떻게 작동해야 되고 또 시민의 힘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어 참 좋았다. 두 번째 꼭지에서는 동구청 복싱부, 우리에게 먼 옛날이야기처럼 들렸던 복싱부 젊은이들의 하루를 쭉 살펴보았다. 희망을 가꿔야 희망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 희망을 주는 일은 언제든지 좋은 일인 것 같다. 희망을 찾는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 류한호 위원 : -저는 <오매 전라도> 같은 프로그램은 귀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좋지 않은 제작 환경에서도 매일 한 시간이 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어찌 보면 참 사소한 얘기, 잊혀진 얘기, 추억거리,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얘기들,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요란하지 않게 서민들의 이야기 방식을 사용한다고 할까. 그렇게 편안하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스토리텔링하는 것들이 어찌면 지역사회의 문화적인 콘텐츠를 발굴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일을 끝없이 해 나가는 것, 그래서 지역의 스토리텔러로서 지역을 풍성하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또 굉장히 잔재미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본다. 이 프로그램이 정체해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을 끝없이 조금 더 재미있는, 설득력 있는 쪽으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시청자의 만족도에 대한 측정, 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를 조금 더 증진시킬 수 있으면서 시청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

아서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또 다른 하나는 이야기를 풀어가는 중심을 어디까지나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 그래서 지역에 나와 같이 살고있는 따뜻한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역에 살고 있는 행복을 느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잊혀진 이야기를 사람 중심으로 끌어주면 다른 어떤 설득적인 요소들보다 더 강력하게 시청자에게 다가갈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콘텐츠를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나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

○ 박미자 위원 : -<오매 전라도>가 매회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준다. 특히 그 시간대는 주부들과 아이들이 많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다. 특히 근래 코로나19 때문에 우려와 걱정 속에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지?라는 주부의 입장으로 시청한다. 뉴스는 몇 명 확진자, 몇 명 접촉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 몇 명 오늘 발생을 했다는 보도만 있다. <오매 전라도>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 속에 지하철을 소독한다든지 또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한 상가를 클린상가라는 입간판을 세워준다는 그런 내용을 통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안도감도 느낄 수 있다. 여러 발 빠른 움직임, 그리고 제작진의 고민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였다. 뉴스 보도는 나름대로 딱딱한 보도이겠지만 <오매 전라도>에서 무조건 흥행 위주의 그런 과정보다도 현실 생활에 맞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그때그때 잘 적용해주셔서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잘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다.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 이나건 위원 : -‘내가 만든 마스크’에 관한 내용이 <오매 전라도>에서 나왔다. 공방에서 수제 마스크 만드는 게 소개됐다. 해당 마스크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면20수 두장이랑 오가닉 면 두 장을 겹쳐서 만드는 형태의 마스크였다. 통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방한 마스크였던 거 같다. 이게 마치 코로나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인 것처럼 표현이 됐다. 2월 4일 보건복지부 브리핑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브리핑 통해서 면 마스크는 사실상 권고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코로나바이러스 크기가 0.1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인데 이것은 KF80 정도 돼도 통과할 수 있는 굉장히 작은 크기다. 결국 면 마스크는 아예 제 기능을 못한다고 볼 수 있다. 4일 날 브리핑해서 권고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게 나온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나오면 좋지 않을까 아쉬움이 있었다. 의학전문가는 아닌데 의학정보 관련해서 몇 번 사례를 말씀드린 것 같다. 사실은 어려운 면이기는 하지만 팩트 중심으로 한다면 확실히 체크해 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다.

-1월 말부터 코너로 ‘강소사원 해볼랑가’가 새로 나왔다. 손민지 아나운서가 출연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에 일일 신입사원 체험을 해보는 포맷이다. 인기 있는 워크맨과 비슷한 포맷이다. 지역 차원에서 스타트업이나 유력기업까지 소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포맷이라고 봐서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저는 생각했다. 워크맨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 도입부에 해당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게 보여주고 시작한다. 어떤 일을 하는 어디에 방문한다는 정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강소사원 해볼랑가’에서는 명확하게 처음에 잘 안 보인다.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를테면 패밀리랜드 하면 그냥 봐도 알겠지만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부족한 사람이라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지 하고 근본적인 물음을 올 수 있겠다. 그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워크맨 같은 경

우 출연자의 입담이나 드립에 많이 의존한다. 아무래도 손민지 아나운서는 그게 어려우니까 다른 부분에서 많이 살려봐야겠다는 고민이 들었다. 워크맨인 줄 알고 봤는데 끝나고 보니까 체험 삶의 현장인 것이다. 정보를 정확히 주거나 재미를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닥을 잡고 구성을 시도해보면 좋겠다. 초반이니까 회를 거듭할수록 더 좋은 재미있는 콘텐츠가 될 거라 기대한다.

- 조숙경 위원 : -<오매 전라도>의 가치에 대해서는 류한호 위원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다. <오매 전라도>가 전라도라는 지리적, 문화적 공동체 이슈를 저는 고향적 정서라고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이고 미래적으로 다루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아야 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다. 18일자 방송분을 다시 봤다. 전체 프로그램의 3분의 1 정도가 먹는 얘기를 하고 있다. 연근차 만드는 거 하다가 10분 정도는 햄버거 먹는 먹방 프로그램처럼 됐다. 물론 비건식을 소개하는 것이었는데 햄버거를 먹는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지고 중간에는 새조개 샤브샤브 같은 것을 먹는 게 이어지고, 프로그램이 먹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 전체적으로 <오매 전라도>가 지향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과 잘 어우러지지 않지 않겠다. 그 방송분만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
- 김요수 위원 : -지난번에 저희가 나주에 갔는데, 저한테는 사연도 있고 그래서 꽤 유쾌한 기억이었다. <난장> 현장에서 보니까 중간 쉬는 시간에 출연진과 관객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이 있었다. 그게 실제 스틸컷으로 해서 방송에 나간다면 시청자들이 관객이 되고 싶은 호기심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 현장에 가서 보는 일이 자주 있으면 좋겠다.
- 박미자 위원 : -라디오는 제가 운행을 할 때 주로 듣는다. 사무실에서는 라디오를 들을 일이 없다. 주로 많이 듣는 게 <놀라운 세시>를 운전할 때 듣게 된다. 가끔은 이 프로그램이 분위기가 업되는, 노른한 시간에 청취자들을 업 시키는 방송이라고 생각한다. 노래도 마찬가지로 출연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사회자 두 분이 주고받고 말하는 과정을 청취자로서 듣다 보면 아무래도 라디오니까 스튜디오 안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제3자의 청취자 입장으로 듣는다. 그런데 이왕이면 두 분만 주고받고 하면서 본인들끼리 즐거워한다. 청취자 입장에서는 왜 그러지, 왜 웃지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제 생각하기에 시간대 또는 진행자들이 본인들이 나누는 대화가 청취자가 듣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친절한 피드백이 함께 이뤄지면 즐거움도 같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가 오늘 보이는 라디오, 보라를 직접 봤다. 거기서 생기는 궁금증을 아까 다 해결했다. 화면을 보면서 보니까 그 안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구나, 서로 본인들은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다. 보는 라디오를 보면 카메라 앵글 속에 잡히는 부분이 아직은 처음 시도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스튜디오 손잡이가 적나라하게 출연자와 함께 보인다든지, 뒷부분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세시>인지 <정오의 희망곡>인지 모른다. 뒷부분에 뭐라도 표시해서 디테일한 부분도 플러스 시키면 시각으로 많이 숙달된 사람에게는 <놀라운 세시>가 와닿지 않을까. 귀로만 듣던 <놀라운 세시>를 스튜디오 장면을 보니까 더 재미있다. 그래서 저도 답글도 남겨 보고 했는데 좀 더 많이 홍보가 됐으면 한다. 팽귄스튜디오도 운영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신경 써주면 좋겠다.
- 최선희 부위원장 : -3분짜리 <라디오칼럼>을 가지고 지난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인

구절벽에서 희망찾기'라는 그 테마가 주는 요소가 저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20년 전의 인구 출산율을 보면 그때 당시 이미 대학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이전으로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산아제한을 시행할 때는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었다. 사회의 미래상을 인구절벽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확대해서 다뤄줬으면 바람이 크다. 중국이 13억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인구의 내수를 비롯한 인건비가 절감돼서 경쟁력이다. 그래서 세계의 제조회사들이 중국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자동차가 멈춰 있다. 여러 제조를 하는 기업들이 국가들이 이런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가 2060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내용도 여기에 흘러나오긴 한다. 앞으로 인구가 어떻게 감소해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예상해보면 우리나라의 존치가 위태로울 정도로 힘든 상황이다. 이걸 <라디오칼럼>의 짧은 꼭지이지만 앞으로 MBC가 다룰 수 있다면 인구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다뤄줬으면 한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천주교쪽 부인회 지원을 받아서 했다고 하면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미국 남장로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에 간호학회랄지 협회가 발생했다. 제중병원에 무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소록도에 감금시킬 정도로 출산을 하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은폐해버릴 때 그들이 한국을 찾아왔다. 쉐핑이라는 사람은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갖고 영화도 나와 있다. 전남대학교 간호대 역사를 콘텐츠로 다루고 관계하다 보니까 올해 나이팅게일 200주년이다. WHO에서도 세계 간호사의 해라고 지정을 해두고 있다. 우리가 지원을 받았던 것을 다시 외국으로 환원해야 될 여러 가지 사회적 장치들도 단편적인 것만 어떤 시점에 화두된 것만 쫓아갈 게 아니라 장편화 시켜서 MBC가 꼭지를 다양화 해서 다뤄줬으면 한다.

- 박미자 위원 :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라디오로만 들었다. 책 읽어주는 할머니, 제 기억으로는 캠페인의 일환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우연찮게 TV를 보다가 라디오만 듣던 할머니를 화면으로 보게 됐다. 책 읽어주는 할머니인데 본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친구의 권유로 시작했지만 지금 삶의 일부가 되고 나이 들어서도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차 올라가고 고령화 됐을 때 집에서 당연히 쉬어야 한다는 고정 인식이 있다. 캠페인을 통해서 충분히 70, 80대 고령층도 일이라기보다는 삶을 활발하게 살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우리가 삶을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100세 시대인데 70, 80대도 얼마든지 삶을 영위하고 누릴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해 준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삶의 이야기, 구석구석 숨겨진 이웃들의 이야기로 감동을 주는 캠페인이 광주MBC의 힘이고 저력이라고 생각한다. 캠페인 준비하는 과정 속에 늘상 그런 부분들 잘 담아주시고 감동적인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다.
- 최영태 위원장 : -<시청자가 만드는 TV>를 몇 편 봤다. 내레이션을 하는 양성은 씨가 많이 나왔다. 좀 목소리가 느리지 않나. 독자적인 프로그램이고 하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이왕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통해 성장하기 위해서 교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주면 성장하고 프로그램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다.
- 김태진 위원 : -2020 <핑크피쉬> 팝업 레스토랑 <대담한 가게>가 서울 익선동에서 지난 주말에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박찬일, 박준우 두 스타 셰프가 흥어를 가지고

요리를 제공했다고 들었다. 아마 타 지역에서 바라보는 홍어의 시선, 출연진의 섭외 문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서울에서 열리지 않았을까 생각해봤다. 자연스럽게 광주에서도 좀 더 다른 시선으로 팝업 레스토랑이 열리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다. 전라도 대표 음식이긴 하지만 광주에서도 홍어를 못 먹는 분이 꽤 많다. 전라도 대표 음식을 못 먹는 전라도 사람들 이런 느낌이라면 재미있는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좀 더 나아가서 전국 각지에서 팝업 레스토랑이 각 지역의 반응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다.

-<라디오칼럼>을 종종 듣고는 한다. 다양한 분야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현재 사회문제나 삶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좋다. 콘텐츠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콘텐츠가 많다. 홈페이지에 가면 다시 듣기가 제공되고 있는데, 내용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키워드별로 검색을 해서 들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 좋은 칼럼을 모아서 책자로 내면 어떨까 생각도 하게 됐다. 분야별로는 전문가들로 칼럼니스트가 배치돼 있는데 세대별로도 특히 청년이나 청소년의 시선에서 바라본 다양한 이야기까지 다뤄진다면 좀 더 풍성한 <라디오칼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다.

- 김형순 위원 : -다른 사람보다 MBC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고 있다. 차에서 MBC 방송을 자주 보는데 가끔 전주 방송이 나온다. 디엠비는 퇴근 때 MBC 소식을 계속 들으려고 하면 안 나온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MBC 방송을 차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 -디엠비는 월화는 전주, 화수목은 여수, 목포, 토요일은 광주가 한다.
- 김형순 위원 : -<오매 전라도>도 여수, 목포가 같이 하나? <오매 전라도>의 내용도 많은 부분이 전라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실은 목포나 여수 같은 지역에 취재진이 나가서 얘기하는 것도 많고 뉴스 내용이 많다. 가능하다면 여수, 목포 3사가 좋은 내용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쪼개서 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 <오매 전라도>인데 광주와 전라도를 구분할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게 어떨까.
-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 -목포, 여수가 제작 여건이 안 좋고 인력 여건이 안 좋아서 안 되고 있다.
- 김형순 위원 :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평화상 운동은 실은 7, 8년 꽤 오래된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남에서는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광주에서 하는데 정작 지역주민인 고흥 소록도는 방영이 안 된다고 한다. 광주 전남연구원 얘기도 잠깐 있었지만 광주, 전남이 한 뿌리고 같이 공유해야 할 가치들이 상당히 많다. 어떤 형태에서든지 이쪽 지역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방송이라는 전파가 경계가 없으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안타까움이 있다. 광주MBC가 주도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전남지역까지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좋은 해법을 찾아가는 게 어떨까.
- 박병규 스마트미디어사업단장 : -동 시간에 지상파에 나가는 것을 저희가 전체를 유튜브에서 스트리밍을 하고 있다. 사실은 뉴욕에 가서도 <오매 전라도>를 다 볼 수 있다. 주변에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거나 하면 광주MBC <오매 전라도>를 6시 20분부터 7시 20분까지 하는데 6시 20분에 유튜브 검색을 하면 실시간으로 뜨니까 참고

해주시고 홍보를 해주시길 바란다.

- 최영태 위원장 : -일요일에 시청자위원회를 편집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방송한다. 답변의 내용이 해당 화면과 함께 하니깐 MBC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걸 보면서 문득 느낀 것이 우리는 광주MBC의 제작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시청자들은 서울에서 하는 것을 많이 듣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주로 광주MBC 것을 주제로 하되 본사에서 하고 있는 것도 꼭 지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해도 괜찮은가?
- 박미자 위원 : -지적을 하면 거기에 전달이 되는가?
-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 -괜찮다. 전달을 한다.
- 최영태 위원장 : -전달 통로가 지역별로 네트워크가 되어있으면 참 좋고, 시청자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편집한 것을 볼 때 중앙에 한 것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 -지적은 좋은데 우리가 답변에서 범위에서 벗어나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 주면 좋겠다.
- 김형순 위원 : -8시 뉴스 중앙방송을 그대로 들고 가면 이제 광주MBC 뉴스가 나온다. 광주MBC에서 올린 중앙 뉴스가 똑같이 나온다. 두 번 들어야 한다. 그럼 거기는 조금 간략히 요약해서 올리고 광주MBC 뉴스는 상세히 있을 거라고 보면 똑같은 필름이 똑같이 돌아간다. 같은 사람이 채널을 고정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들어야 한다. 광주MBC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못 보신 분들은 지역 소식을 더 자세히 듣지 않을까.
- 최영태 위원장 : -오늘은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해주시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직자의 답변 들겠다.
-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 -정규프로그램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송을 해오고 있는데 정보제공이나 대처 방법, 이겨내기 위한 일상 이런 것을 잘 다루고 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아이템에 집중을 하고 있다. 나주에 확진자가 거주하는 인근의 딸기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거기 촬영을 해서 오늘 방송을 한다. 면 마스크에 대해 이나건 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가 일회용 마스크라도 쓰는 게 좋다는 것에 집중을 해서 했다. 4일 브리핑 말씀을 하셨는데 7일에는 면 마스크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다. 그 점 감안을 해주면 좋겠다. '강소사원 해볼랑가'는 지역의 중소기업의 속내를 들여다보고 나름 격려하기 위한 아이템인데 좋은 지적 해주셨다. 약간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포인트를 잘못 잡을 때도 있다. 이 점 제작진과 이야기해서 정체성을 잡아가도록 하겠다. 조속경 위원 말씀하신 먹거리 부분이 집중된 부분은 그날 여섯 꼭지가 방송이 됐는데 연근차는 연근 수확을 방송하다가 중간에 잠깐 나온 것이고, 새조개는 흥성으로 떠나는 역사여행 중에 나온 것이다. 동구청 복싱부 이야기 김요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희망찾기 아이템을 계속 발굴할 예정이다. 5.18 40주년 영화를 만드는 시민들이나 심야약국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 류한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도 <오매 전라도> 프로그램에 변신을 끊임없이 하겠다. <문화콘서트 난장>은 김요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적극 반응을 하겠다. 다음 녹화는 3월 5일이고 코로나19 때문에 2월에 녹화를 안 했는데 열 감지기 손 세정제 등을 준비해서 녹화를 진행하겠다. 박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놀라운 세시>는 주의를 시키도

록 하겠다. 박병규 단장이 얘기했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청취자 소통을 활발히 하면서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 더불어 삼니다 캠페인 ‘책 읽어주는 할머니’는 한가름 피디가 제작을 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3월에는 광주의 228버스와 대구의 518버스 양쪽을 취재해서 시대의 아픔을 보듬어 더불어 사는 역할을 하도록 조치하겠다. 최영태 위원장 말씀하신 <시청자가 만드는 TV>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다. 김태진 위원 말씀하신 <핑크피쉬> 팝업 광주, 또는 전국, <라디오칼럼> 세대별로 잘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 한신구 보도국장 : -코로나 관련해서는 대구에 있는 확진자가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옮겨 갔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에서는 가장 신속한 전파와 선제대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돼 있다. 그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지역경제 최소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하며 차분히 대응하겠다. <내 인생의 오일팔> 같은 경우 지금까지 네 편 방송이 나가고 있다. <뉴스데스크> 방송사고 관련해서 말씀 주셨다. <뉴스데스크> 들어가기 전에 평일에는 스포츠 타이틀, 주말에는 날씨 타이틀이 몇 시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시간이 오는데 그게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 뉴스 시간이 짧다 보니까 24분 몇 초에 날씨 타이틀이 가령 30분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2분 정도 당겨질 수 있다. 이걸 미리 알려주면 저희가 방송을 들어가는 지점을 잡겠는데 30분으로 알고 있는데 방송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음 아이템 끝납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럼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저희가 진행할 때 가장 큰 고민이고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그걸 지켜달라고 하더라도 서울이 각 기자별로 제작하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8시까지도 원본이 안 오는 경우가 많다. 뉴스는 실시간으로 당일 뉴스가 바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뉴스할 때 방송이 되고 있는데 테잎을 내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게 보도국의 상황이다. 그런 부분 최소화 하려고 하는데 어떨 땐 그럴 때가 있다는 점 말씀 드린다. 뉴스 중복문제 김형순 위원님 말씀해주셨다. 저희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여건이 녹록치 않다. 어떤 분들은 왜 광주에서는 그 뉴스를 안 했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많다. 가장 중점적인 뉴스를 서울에 올리기 때문에 그 뉴스를 빼놓고 다른 뉴스 하기가 쉽지 않다. 조금은 바뀌어서 제작하는 방법은 있다. 기본적인 원고를 쓰면 서울에서 데스크팅 과정을 서울과 또 거친다. 그 시간이 7시에서 7시 반이다. 그럼 따로 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말씀 드린다. 8시 라디오나 12시 라디오 뉴스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 수정도 하고 더 많이 노력을 하겠는데 당일에 오전의 뉴스가 지역의 한계상 특별한 뉴스가 많이 없다. 저희가 리포트 꼭지로 제작하면 그게 중요한 뉴스가 되는데 12시 뉴스 같은 경우 3분, 4분 정도 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리포트 꼭지를 담을 수 없다. 그럴지 않으면 스트레이트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나갈 수 있다는 부분 이해해주면 좋겠다. 광주전남연구원 부분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연구원의 태동이 전남연구원에서 출범을 했고 90년대 따로 분리됐다다가 민선 5기 상생 첫 과제로 다시 통합이 됐다. 이게 태생적 한계가 있다. 시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쉽게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살펴보겠다. 선거방송 보도에 대해서 류한호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총선 후보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후보들의 공약이 없다. 민주당 공천을 받냐 마냐, 야3당이 통합을 하냐 마냐만 갖고 하고 있다. 선거구에 어떤 공약을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 후보가 확정이 되면 저희도 보도를 하려고 준비 중이다. 문제는 지역 특성상 여야가 따로 없다. 원 말이나면 어떤 이슈를 던져주면 그 이슈에 대해 다들 의견이 거의 같다. 자유한국당 후보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면 다를 수 있는데, 지역의 정치 지형상 어떤 이슈를 던져줬을 때 거의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나온다. 저희도 8년 전에 선거자문단을 꾸려서 해봤는데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다. 올해도 선거방송기획단 꾸리면서 그런 고민을 해봤지만 현실적으로 인력 한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 후보가 확정이 되었을 때 SMT와 연계해서 후보의 공약이나 이런 부분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게 지금 여건에서는 낫다고 본다. <시사본색> 여러분들께서 칭찬해주셔서 고맙다. 용어 사용에 있어서 주의를 하도록 김낙곤 진행자에게 전하겠다.

- 최영태 위원장 :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다. 많이 개선되리라고 믿는다. 방금 보도부분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한 달, 두 달 동안 선거 관련 뉴스를 많이 보낼 텐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든다. 많이 개선되리라 믿는다. 다음 달 할 때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MBC가 코로나 보도를 잘해서 광주가 안전하다는 칭찬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다.
- 송일준 사장 : -무려 한 시간 반이 걸렸다. 정말 감사드린다. 대한민국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중에 최고라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선거국면에서 여론조사를 한국갤럽하고 했는데 비용적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역의 프린트 매체와 연합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는 2차 여론조사를 23일부터 한다. 세 번을 할 계획이다. 여론조사 자체도 돈 들인 만큼 정확하게 나왔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신뢰도인데 광주MBC의 여론조사는 그런 면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뉴스 시청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엇그제는 14.4%가 나왔다. 지역민이 광주MBC의 그간의 노력을 평가하고 신뢰가 회복이 됐다. 뉴스는 광주MBC를 보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저도 자문위원이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게 재정독립의 문제인 것 같다. 결국은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자체 용역 연구도 하고 수익을 벌어들이지만 모든 게 그런 것 같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재정적 독립이다. 우리는 시청료를 받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외부의 협찬에 의존하지 않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제대로 된 보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한 시간 반,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
- 최영태 위원장 : -수고 많으셨다.

끝.